

# 최근 국제 유가 동향과 '93년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

## 1. 최근의 국제 유가 약세 요인과 그 특징

### (1) 국제 유가, 약세의 원인

- 계절적 盛需期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약세가 지속중임. 국제 유가(OPEC 평균 현물 유가)는 9월 이래 2개월간 19달러 내외의 강보합세가 유지되었으나 10월 21일부터 급락하여, 11월말에는 17.64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금년 최고 가격(10월 16일, 19.27달러) 대비 8.5% 하락한 것임.
- 이러한 유가 하락은 이라크 석유 수출 再開說이 시장에 유포된 것. API(미국 석유협회)의 石油 재고 증가 발표, OPEC 원유 생산 호조(9월 2,475만b/d, 10월 2,530만b/d)와 이란 및 쿠웨이트 생산능력 확대 발표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임.
- 특히 先物 시장의 투기 세력이 이번 하락을 촉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WTI 11月物의 거래 종료(10월 21일)와 함께 공공 기금(PUBLIC FUND)의 집중 매도에 따른 매도 분위가 가속화가 계속됨.

### (2) '91년 冬節期 유가 약세와의 비교

- 유사점
  - '91년 10월 이래 2개월간 19~20달러의 강보합세를 유지하던 국제 유가는 12月物의 거래 종료 이후(11월 21일) 급락, 그후 4개월간 16달러의 약세를 지속하였음.

- 작년 11월 유가 약세의 시작도 이라크 石油 수출 재개 임박설이었음. 또한 시기적으로도 OPEC 90차 총회 싯점을 전후하여 OPEC의 시장 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고 OPEC 또한 유가 회복 노력에 미온적이었음.

- 차이점 : 작년 동절기 석유 수급은 1백만b/d 내외의 공급 과잉 상태였으나 현재는 수급 균형 상태임. 작년 동절기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으로 소비는 예상보다 감소하는 반면, 非OPEC 생산은 증대되었음.

- 소비감소 : 북반구의 暖冬, 정세 불안에 따른 소련 국내 소비 감소

- 공급증가 : 北海 油田의 석유생산 순조. 감소가 예상되었던 소련 석유수출(2.0백만b/d)도 장애 없이 계속

### (3) 최근 유가 약세의 특징

- 석유 수급 균형하에서의 약세
  - 4/4분기 OPEC 원유에 대한 수요는 25.2백만b/d임. 이에 대해 OPEC의 10월 원유생산은 25.3백만b/d로 수급은 대체로 균형 상태임.
- 언제든지 반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약세
  - OPEC의 예상의 증산이 유가 약세의 큰 요인 : OPEC의 10월 원유 생산 실적은 석유 시장의 예상(24.8백만b/d)보다 0.5백만b/d 초과하는 수준임. 이에 따라 4/4분기 석유 수급은 0.5백만b/d 공급 부족 전망(IEA, '92년 9월)에서 수급 균형 상태로 완화됨.

-사우디, 이란의 의지에 따라서 용이하게 감산할 수 있음. 금년 5월, 사우디, 이란은 유가 회복 조치에 공동 보조를 취한 바 있음.

-심리적 약세 요인 가세 : 美國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당선됨으로써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 가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 사우디-이란의 OPEC 주도국 다툼, 제92차 OPEC 총회 결과에 대한 기대 심리 약화 등이 현 유가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중(제92차 OPEC 총회 결과 : 부록 참조).

(4) 금년 동절기 유가 전망

- 동절기 석유 수급 균형 상태 예상 : 동절기 OPEC 원유에 대한 수요는 25.2~25.4백만b/d. 이에 대해 OPEC 원유 생산은 이번 총회의 24.8백만b/d 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10월 수준(25.3백만b/d)이 지속될 것임. 이란이 일부 감산하더라도 쿠웨이트의 増産分이 이를 상쇄.
- 현재의 OPEC 평균 유가는 17~17.5달러 내외임. 그동안 유가 하락을 촉진했던 시장요인이 모두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을 것임. 동절기 유가는 현재 수준을 바닥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상승, 18~20달러 범위에 머물 것으로 보임.
- 이라크의 시장 진출이 봉쇄된 현재의 공급 기반은 취약함. OPEC 생산 가동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93% 수준에 도달해 있음. 酷寒 또는 돌발 사태로 공급 장애가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22달러까지 유가 상승 가능.

3.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3년에는 1차에너지지 1.2%, 석유 1.1%의 소비증가가 예상됨. 1차에너지중 石油 의존도는 40.2%로 '9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 '93년 OPEC 원유에 대한 수요는 25.5백만b/d(1/4분기 25.4백만b/d, 2/4분기 24.6백만b/d, 3/4분기 25.3백만b/d, 4/4분기 26.8백만b/d)로 전망됨. 이에 대해 OPEC 생산은 25~25.5백만b/d가 예상됨으로써 전체 석유수급은 약간의 공급부족(0.5백만b/d 내외)이 예상되긴 하나 대체적으로는 수급 균형 유지가 가능함.

-공급 수준은 일정한데 비해 분기별 수요 격차가 큼. 2/4분기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유가 약세, 4/4분기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강세가 전망됨.

(2) 1993년 油價 결정의 주요 인자 및 그 평가

<세계 경제성장>

- '92년중 선진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음.
  - 美國, 캐나다 : 경기 침체는 끝나고 있으나 경기 지표는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회복을 낙관하기는 곤란.
  - 日本 : 戰後 가장 심한 침체 상태. '92년 8월, 890억달러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반응은 미미.
  - 英國 : 침체 상태 지속. 투자부진과 무역수지 악화로 '92년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西유럽 : 獨逸의 高金利와 부진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93년 세계 경제는 '91~'92년의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92년 하반기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93년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음.

2. 1993년 국제 유가 展望

(1) 세계 석유수급

- 세계 경제성장이 '92년의 0.9%에서 '93년에는

기관별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

(단위 : %)

	1991	I M F		O E C D		W E F A	
		'92	'93	'92	'93	'92	'93
세 계	0.1	1.1	3.1	-	-	0.9	3.1
선 진 국	0.6	1.7	2.9	1.5	2.1	1.7	2.8
미 국	-1.2	1.9	3.1	1.8	2.4	1.8	2.9
일 본	4.4	2.0	3.8	1.8	2.5	2.2	3.4
서 유 럽	0.7	-	-	1.0	1.4	1.3	2.1

- 낙관론: '93년 세계 경제는 경기 부양 조치의 효과 가시화, 국제 원자재 가격안정등에 힘입어 3% 내외의 성장 가능(WEFA, IMF).

- 비관론: '93년도에는 외환시장 불안정, 경제 블록화 심화에 따른 통상 마찰 지속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美國 경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니 日本, 유럽 경제의 침체는 계속된다는 관측임(OECD, ECE).

**<이라크의 석유 輸出 재개>**

- '93년도 석유 시장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이라크 석유수출의 재개 여부임. '91년 9월 이래 이라크와 UN의 석유수출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쌍방의 異見差로 이라크 석유는 '90년 8월부터 국제석유시장진출이 봉쇄되어 있는 상태임.
- '90년 9월, 유엔은 이라크에 대하여 6개월간 16

억달러에 달하는 제한적인 석유수출(당시 이라크 석유수출 가격인 FOB 17\$/B를 기준할 때, 이는 0.515백만b/d에 상당함)을 허용하는 대신 석유수출 대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한하였음.

- 이라크의 석유생산능력은 2.5백만b/d로 추정되나 국내용으로 0.4백만b/d만이 생산되고 있음.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과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치적 난관이 이라크의 시장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음.
- 美國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에 관한 가능성이 보다 커졌음. 이는 양 당사국 지도자(부쉬, 후세인)간의 거부감으로 그동안의 협상이 장애에 부딪혔던 것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임. 클린턴 당선 직후 이

OPEC 평균 유가 실적과 전망 (\$/B)

	1/4	2/4	3/4	4/4	년간
1989	15.73	17.07	16.02	17.44	16.56
1990	17.99	14.30	23.57	29.23	21.27
1991	17.93	16.41	17.76	18.55	17.66
1992	16.24	18.32	18.82	(18~19)	( 18 )
1993 (1)	(19~21)	(17~18)	(18~19)	(19~22)	(18~20)
(2)	(18~20)	(16~18)	(17~18)	(18~21)	(17~19)
(3)	(17~18)	(15~16)	(16~17)	(17~19)	(16~18)

註: 1993 (1) 이라크 석유수출 금지 지속 경우  
 1993 (2) 이라크 석유수출, 3/4분기부터 0.5백만b/d 허용 경우  
 1993 (3) 이라크 석유수출 본격화, OPEC의 부분적 증산 경쟁

**기관별 유가 전망 비교**

	전 망 시 점	전 망 기 간	OPEC 평균 유가
Morgan Stanley & Co.	1992. 11/30	1992. 12	18~19\$/B
알제리 석유장관	1992. 11/27	1992. 12	19~20\$/B
WEFA	1992. 11/24	1992. 4/4분기 1993. 1/4분기	18\$/B 18~19\$/B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1992. 10/30	1993. 1/4분기 최고	22\$/B(혹한 또는 공급장에서)
MEES 誌	1992. 9/30	'92. 12~'93. 2	21\$/B
Kleinwort Benson Securities	1992. 11	1992. 4/4분기	20~21\$/B
WEFA	1992. 10	1993. 평균	19\$/B
IMF	1992. 10	1993. 평균	19\$/B
OECD	1992. 6	1993. 평균	18\$/B
EIA	1992. 4	1993. 평균	18.5\$/B
Baring Securities	1992. 7	1993. 상반기 하반기	19\$/B 20\$/B

세계 석유수급 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B/D)

	1992					199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요	68.1	65.5	66.0	67.1	69.0	69.0	66.3	67.0	69.7	68.0
· OECD	39.3	37.4	37.8	38.6	40.0	40.0	37.8	38.2	40.1	39.0
· CIS	8.2	7.6	7.4	7.7	7.6	7.6	7.2	7.2	7.3	7.3
· 非OECD	20.6	20.5	20.8	20.8	20.8	21.4	21.3	21.6	22.3	21.7
공급	67.3	66.3	66.6	67.1	67.1	68.0	67.2	67.7	69.2	67.9
· 非OPEC	41.2	40.5	40.5	40.8	40.8	40.6	40.6	40.4	40.4	40.4
-OECD	16.8	16.3	16.3	16.5	16.5	16.7	16.7	16.7	16.7	16.7
-CIS	9.5	9.3	9.2	9.3	9.3	8.8	8.6	8.6	8.6	8.6
-非OPEC	14.9	14.9	15.0	15.0	15.0	15.1	15.1	15.1	15.1	15.1
· OPEC NGLs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OPEC(원유)	24.1	23.8	24.1	24.3	24.3	25.4	24.6	25.3	26.8	25.5
재고변동	-0.8	+0.8	+0.6	0.0	0.0	-1.0	+0.9	+0.7	-0.5	0.0
OECD 육상	93.7	95.7	96.4	-	-	92.0	95.0	95.7	92.6	-
재고 일수										

註 : 1. 공급은 Processing gains(1.4백만b/d) 및 OPEC의 콘덴세이트 포함.  
 2. OPEC 공급은 에콰도르를 포함한 對 OPEC 원유 수요 개념임.

라크는 이를 환영하고 對美 대화에 적극적인 희망을 표명.

- '93년 중반경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큼. 그러나 후세인 정권하의 이라크가 UN 終戰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이라크의 전면적 석유수출 허용가능성은 희박함.

**<OPEC의 결속력>**

- 사우디-이란간의 OPEC 내 주도권 다툼,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실험을 전후한 각국별 쿼터 배분 과정등에서 갈등이 예상됨. 특히 공급 초과(0.6백만b/d 내외)가 예상되는 '93년도 2/4분기에 OPEC이 결속력 유지에 실패할 경우, 국제석유시장에서는 큰 혼란내지 유가 급락이 초래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이라크 석유수출이 '93년 2/4분기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 약함.
- OPEC 내에서 잉여생산능력을 가진 국가는 사우디, 이란에 불과함. 이들 양국은 다같이 財政 수요 충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를 희망하고 있음. OPEC 평균 유가 기준으로 이란은 20~21달러, 사우디는 19달러 내외가 이들 양국의 정책목표로 보임.

- 따라서 국제 유가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17달러 이하의 유가), 사우디와 이란은 결속력 강화에 함께 노력할 것임.

- '93년도에도 OPEC 회의는 자주 개최될 것임. OPEC는 걸프전 終戰 이후 거의 매분기마다 회합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 개최 자체가 유효한 유가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OPEC 석유 장관들이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이 모이고, 석유시장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유가변동과 거래 활성화가 촉진될 것임.

**<中東 정세>**

- 현재 계류중인 中東 문제 현안 :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무기사찰, 리비아에 대한 공중 봉쇄 등이 지속중임. 또 이스라엘과 아랍(특히 팔레스타인간)간의 갈등도 여전함.
- 中東 평화회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해결 없이는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졌음. 걸프전 終戰 이후, 美國의 적극적인 중재로 '91년 10월부터 中東 평화회담이 개최중임. 8차 회담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었으나, 양 진영이 平和 共存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개설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中東 평화회담 전망 양호 : 현 이스라엘의 라빈총리가 사미르 총리와는 달리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아랍측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원하고 있어 장기적 전망은 밝음. 클린턴 행정부 또한 베이커 前 국무장관을 특사로 파견, 中東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 '93년 中東 정세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中東 정세 불안 요소의 대부분이 걸프사태를 전후하여 노출되고 여과되었음. 지금 계류중인 현안도 수습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발요인이 별로 없음.
  - 이라크, 리비아에 대한 유엔 安保理 제제는 당사국과 UN과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결실마리를 찾을 것임. 클린턴 행정부의 동장이 이러한 기대감을 높여줌.
  - 이스라엘-아랍간의 갈등을 비롯한 中東 문제의 대부분이 中東 평화회담을 통해 수렴될 수 있음.
- 中東 정세 불안에 의해 '93년중 근본적인 석유수급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함. 그러나 이 지역의 정세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으므로 산발적인 사건 발생에 따른 심리적 영향은 상존함.

#### <CIS의 석유 수출>

- '93년 CIS의 석유생산은 8.6백만b/d로 '92년 대비 0.7백만b/d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전망기관에 따라서는 감소세가 확대되어 '93년 생산을 8.0백만b/d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석유생산급감에 비해 CIS 석유수출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작음. CIS 석유수출은 '92년 1.6백만b/d이며, '93년에는 1.3백만b/d가 예상됨. 외화획득을 위해 일정 수준의 석유수출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舊소련 쿠데타시에도 석유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음.
  - CIS의 경제성장부진, 국내유가 현실화로 국내 석유소비 감소세 지속

#### <클린턴 행정부의 석유 最低 價格制 도입 검토>

- 클린턴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 에너지와 環境과의 조화, 천연가스 이용 증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증대 등이 예상된다. 한편 재정적

자 축소와 관련, 환경세의 신설과 휘발유세 증액 가능성이 있음.

- 최저 가격제 도입 검토 :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 석유생산을 촉진하여 輸入 原油 依存度를 감축할 목적으로 美國내 석유개발에 대한 세계 우대정책과 함께 최저가격제 도입을 구상중임.
  - 국내 개발업자의 채산성을 기준하여 국제 가격이 이보다 하회할 경우, 국내유가를 최저 가격으로 결정하여 국제가격과의 격차로부터 국내 개발업자를 보호.
- 구상중인 최저가격제도는 국제원유가격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OPEC 회원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음. OPEC는 석유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격정책에는 강력히 반발한다는 입장임.
- 클린턴 행정부가 최저 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OPEC 특히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불편이 예상된다. 이는 OPEC의 공격적 가격정책을 촉발할 수 있음.
- 최저 가격제 도입은 구상 단계에 불과한 장기 정책 과제임. 이의 시행에는 국제관계의 고려, 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조정, 여론지지 등 수많은 난관이 있음. '93년중 이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우므로 '93년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임.

#### <선진국의 에너지/탄소세 도입>

- EC는 '93년부터 3\$/B의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되 이를 매년 1\$/B씩 증액하여 2000년에는 10\$/B이 되게 할 움직임을 보임.
- 선진국의 에너지/탄소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OPEC 전체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는 OPEC가 결속하여 유가인상으로 대응할 것임. '92년 5월, EC 등의 에너지/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을 때, 사우디와 이란은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단시일내에 유가를 2~3달러 인상시킨 바 있음.
- '93년중 도입은 부정적 : 에너지/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견해가 상충되고, 도입국내에서도 에너지가격상승, 경쟁력 저하등을 이유로 한 반대여론이 강력함. 따라서 구체적 도입까지는 난관이 많고, 많은 시간이 필요함.

(3) '93년 국제유가전망

○ 상기 油價 決定 因子들을 종합 평가해 볼 때, '93년 유가에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이라크의 석유수출재개 시점 및 그 규모」가 지적됨. 이에 따라 '93년 유가전망을 2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음.

(1) 이라크 석유수출 봉쇄가 지속될 경우 : 수급분 석을 근거로 한 '93년의 국제유가는 '92년 대비 평균 5% 정도 상승된 19달러 내외가 예상됨 그러나 OPEC 가동률이 과다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급기반은 취약한 상태임. 유전사고, 寒波, 돌발적인 공급장애요인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국제유가의 불안정과 변동 범위는 커질 것임.

(2) 이라크 석유수출이 再開될 경우 : 국제유가는 안정 (16~19달러)을 기할 수 있음. 부분적 수출허용시는 0.5백만b/d, 전면적 수출허용시는 2.0백만b/d의 석유가 추가공급되기 때문임. 후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제유가는 급락을 초래하겠지만 OPEC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석유공급을 조절할 것임.

○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여부는 이라크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UN 終戰 決議案 이행 등), 후세인 정권이 존속하는 한 전면적인 수출재개는 어렵다고 관측됨.

○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93년 하반기부터, 0.5백만b/d의 부분적 허용」이 유력함. 이를 바탕으로 한 '93년 OPEC 평균 유가는 17~19달러임.

<부록>

제92차 OPEC 총회 평가

(1) 제92차 OPEC 총회 (11/25~27일, 비엔나)의 주요합의사항

- 1993년 1/4분기 OPEC 생산쿼타를 2,458만b/d로 결정하되, 신규 쿼타는 12월 생산분부터 이행하기로 함.
- 국가별 쿼타제 복귀. 이는 잠정적이며, 향후 쿼타 설정의 기준이 되는게 아님. 1993년 2/4분기 쿼타결정을 위한 감시위는 2월 13일에 개회

(2) 평가

- 이번 OPEC 총회는 사우디와 이란의 참여한 대립으로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2개국 이 타협함으로써 합의에 도달.
  - 이란 : 3.8백만b/d 쿼타 주장에서 3.5백만b/d로 양보
  - 사우디 : 8.4백만b/d 쿼타 고수에 성공
- 이번 합의는 현 생산(25.3백만b/d) 대비 0.7백만b/d가 줄어든 것이나 탈퇴선언을 한 에콰도르 (0.325백만b/d) 쿼타가 제외되어 있어서 실제적 감축효과는 0.4백만b/d에 불과함.
- 쿠웨이트의 쿼타는 1.5백만b/d로 결프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됨. 아울러 쿠웨이트의 추가 증산도

허용됨. 시장 진출이 봉쇄된 이라크의 쿼타는 0.5백만b/d에 불과하며, 이라크측은 강한 불만을 표시.

○ 석유시장은 0.5~0.8백만b/d의 감산합의를 기대했으나 회의 결과는 이에 못미침. 이번 총회는 유가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유가 회복조치 마련에는 미흡함.

OPEC의 최근 생산과 신규 쿼타

(단위 : 백만B/D)

	92. 10월 생산	'93. 1/4분기쿼타
사우디아라비아	8.5	8.395
이 란	3.8	3.490
이 라 크	0.4	0.500
U A E	2.3	2.226
쿠 웨 이 트	1.3	1.500
카 타 르	0.5	0.380
나 이 지 리 아	2.0	1.857
리 비 아	1.5	1.409
알 제 리	0.8	0.764
가 봉	0.3	0.293
베 네 수 엘 라	2.4	2.360
에 콰 도 르	0.3	제 외
인 도 네 시 아	1.3	1.374
합	25.3	24.582

현물유가와 국내도입단가

(단위 : \$/B, FOB)

	WTI	Brent	Dubai	OPEC 평균	도입단가
1989년	19.64	18.23	15.65	16.56	15.81
1990년	24.34	23.46	20.26	21.27	20.00
1991년	21.50	20.07	16.54	17.70	18.55
1월	25.29	23.00	19.65	21.24	26.39
2월	20.49	20.21	14.26	16.21	21.73
3월	19.89	19.04	14.84	16.34	16.82
4월	20.70	19.00	15.23	16.41	16.42
5월	21.24	19.20	15.92	16.90	15.97
6월	20.25	18.15	15.40	16.28	16.71
7월	21.34	19.38	16.22	17.22	16.17
8월	21.69	19.75	16.60	17.58	17.13
9월	21.84	20.48	17.86	18.47	17.40
10월	23.17	22.19	18.85	19.82	18.09
11월	22.45	21.09	18.39	19.23	18.94
12월	19.68	18.39	15.31	16.60	19.69
1992년					
1월	18.83	18.16	15.72	16.15	17.24
2월	18.98	18.15	15.72	16.43	16.32
3월	18.89	17.51	15.70	16.14	16.35
4월	19.88	18.88	16.62	17.18	16.41
5월	20.96	19.88	17.63	18.19	17.06
6월	22.39	21.19	18.99	19.59	18.08
7월	21.80	20.33	18.54	19.13	19.38
8월	21.31	19.76	18.00	18.50	18.94
9월	21.83	20.20	18.35	18.88	18.60
10월	21.92	20.30	18.19	18.89	18.73
11월	20.50	19.23	17.15	17.88	

-사우디와 이란 등 OPEC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에 만족 표명. 연말까지 1.0~1.5달러의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

■ 證市 스케치 ■

## 신데렐라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계모와 그의 딸에게서 학대 받다가 친어머니의 영혼의 도움을 받아 어느날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서양의 한 동화속의 주인공을 정신의학계에서 원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여성이 신데렐라처럼 일시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왕자와 같은 사람의 출현만을 기다리는, 즉 남자의 인생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심리적 의존현상을 말한다.

주식투자자를 가운데서도 성별 구별없이 이같은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하에 합리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부화뇌동속에 일확천금의 횡재를 바라며 투기를 일삼고 있다.